

# 주택·건축분야 성과 빛났다

## 군산시, 건축분야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군산시가 2018년도 주택 및 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18일 '전라북도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총 8개 분야 22개 항목 38개 지표에 대한 주택 및 건축분야 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공동

주택건설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경관정책 및 건축행정 건실화,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저소득 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업무추진 수범사례 성

과 및 우수시책 발굴에 적극 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통합 관리·안전점검·시설지원·공동체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거취약계층의 투명하고 쾌적·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관리사무소·공동주택 품질 검증단·주거복지금융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서민주거안정 분야의 특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환경개선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며 "내년에도 군산시 주택·건축행정이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과 함께 한걸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시의회, 현안사업 공유 간담회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18일 각종 현안 해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조규대 시의회의장 등 의정단이 참석해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익산시는 먼저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맞아 시발역(여객, 물류) 경쟁

지역 및 물류 거점기지 기능수행으로 익산역의 미래 역할과 남북협력사업 등을 통해 익산시 미래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익산 역세권 개발을 통한 복합환승 기능 강화, 철도 이용객 편의 제고 및 교류 인구 확대를 위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 국제 철도역 여객기능(CIQ)을

갖춘 유라시아 시발역 선정, 유라시아 국제 물류기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및 재원마련, 남북 체육 교류 확대를 토대로 경제교류까지 이어지는 남북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에 의정단과

간담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시의회의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매월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대 시의회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의가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맞아 유라시아 해양 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농기센터, 농업농촌 발전계획 보고회 성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지난 14일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익산시의회, 내년 사자성어 세답족백(洗踏足白) 선정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가 2019년 기해년을 앞두고 '세답족백(洗踏足白)'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세답족백은 남을 위해 한 일이 자기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나보다 우리, 화합하는 익산을 위해 힘차게 달려겠다는 의미로 쓰여진다. 세답족백은 상전의 빨래를 발로 밟아 해 주다보면 종의 발뒤꿈치가 희

게 된다는 옛 사람들이 봉사의 정신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애초 자기에게 특별히 이득이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으나 남을 위해 성실껏 일하다 보면 자신도 성장함을 뜻한다. 조규대 의장은 "정치든 봉사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서로가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익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본인의 자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세답족백을 내년 사자성어로 택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2019년에도 시민들이 행복한 익산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민선7기 핵심 '친절행정' 강조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익산시가 민선7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직원들이 친절행정 추진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고 있는데, 사

실 분위기를 흐리는 몇몇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직원들 대다수가 친절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러 번 강조했지만, 친절행정을 추진하는 주요취지는 '질책'이 아니라 '칭찬'하고자 하는데 있다"면서 "직원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고, 마음에서 우러난 즐거

운 친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의 견수령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시는 민선7기 핵심과제로 '2018년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5개 친절사업을 추진했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한 익산' 아침방송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를 비롯해 기업 및 단체 측은 나눔 실천가와 읍면동에 꾸준한 나눔과 기부 실천해온 23명, 유공 공무원 4명 등 총 43명이 수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나눔 봉사를 실천해 준 많은 분들이 있어 익산시가 민간협력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나눔의 날 행사 개최

익산시가 18일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희망복지지원사업, 청소년 희망나무프로젝트, 기부식품제공사업, 읍면동 맞춤형 복지분야에서 나눔과 봉사 실천으로 나눔의 온도를 올려 준 나눔 실천

가 46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익산시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2개 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 없는 나눔 봉사를 실천한 홈플러스 한미음봉사단,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등 3개 기관이, 개인포창에는 익산시에 지속적인 나눔 기부를 펼쳐온 여전예프렌시

를 비롯해 기업 및 단체 측은 나눔 실천가와 읍면동에 꾸준한 나눔과 기부 실천해온 23명, 유공 공무원 4명 등 총 43명이 수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나눔 봉사를 실천해 준 많은 분들이 있어 익산시가 민간협력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

### "성공적인 도시재생 위해 지역특색 갖춰야"

#### 박광일 의원, "쇠퇴지역 양적 공급 등서 벗어나 지역주민·공동체가 함께 회복돼야" 주장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마 선거구)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214회 2차 정례회 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쇠퇴지역의 양적 공급과 물리적 환경정비 조성, 관광사업 증대와 같은 물리적 개선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장소를 판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특성 있는 문화관광컨텐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정립성을 위해서는 탁상행정과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조사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복지환경계획,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집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자산을

### "성산·나포 인근 주민피해 대책 절실"

#### 이한세 의원, "대운산업개발, 쇄골재용 토목용·조경용 석재 채취 이윤 추구중 지역주민들 발파진동으로 피해 입고 있어"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다 선거구)이 성산면, 나포면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정해제 권한이 이관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최초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부지에 채석단지 변경지정 민원이 접수돼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214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운산업개발이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성산면 여방리와 나포면 서포리 지역주민들은 발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후 재심의 요청 시 산지의 이용 및 보전, 환경피해, 재해발생의 우려, 주민피해대책 방지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또 발파작업으로 인해 수년 동안 건물의 벽 균열과 소음, 비산물의 피해 등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살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지정 건은 2014년 11월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